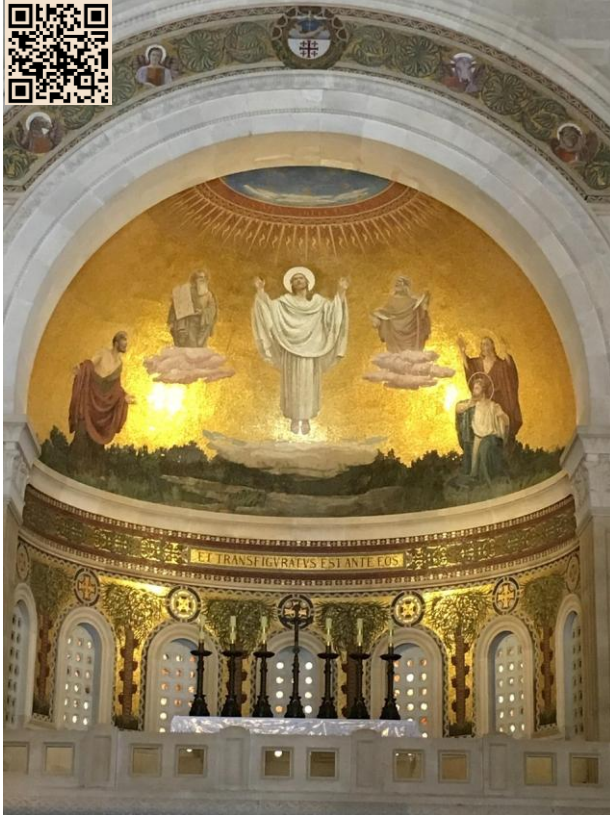


아케엠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루카 9,29)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사순 제2주일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위대하시고 진실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당신 얼굴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굳게 믿고 성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합시다.

• 제1독서

창세 15,5-12.17-18

• **입당송** 시편 27(26),8.9 참조

• **화답송** 시편 27(26),1.7-8.9.13-14(◎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주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여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필리 3,17-4,1

•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복음

루카 9,28ㄴ-36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제자들을 주님 변모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셨으니, 주님의
교회를 일깨워 주시어, 교회도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바른 양심을 심어 주시어, 개인의 풍요와 이익을
쫓기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3.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지역 사회의 모든 이를 이끌어 주시어, 기후 위기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며, 피조물들을 바르게 보존하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4. 아켄 전담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께 고귀한 사명을 받고 따르는 김성인 미카엘 사제를 축복하시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당신이 맡기신 양 떼를 담대하고 성실히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위로와 용기가 되어 주소서.

• 영성체송

마태 17,5

[아캠] 온라인 사순 특강 (2차)



- ▶ 일 시 : 3월 26일 (수) 20시 (UAE 기준)
- ▶ 강 사 : 이미숙 루치아 수녀님(살레시오회)

[아캠] 전담 사제 공동체 사목 방문 일정

- ▶ 방 문 : 카이로(이집트) 공동체
- ▶ 기 간 : 3월 19일(수) ~ 3월 22일(토)



[두바이/아부다비] 희년 성지 합동 순례

2025년 희년 기간에 남아라비아 대목구 내에 전대사를 위한 순례지로 선포된 세 곳의 성지 중 한 곳인 라스 알 카이마의 성 안토니오 성당에 두바이와 아부다비 공동체가 함께 성지를 방문하고 순례하기로 하였습니다.



- ▶ 방문 성지 : 라스 알 카이마 파두아의 성 안토니오 성당
 - ▶ 일 시 : 3월 16일 (주일) (미사 시간: 11시)
- ※ 미사 후, 두바이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 나눔을 합니다.

[교종 프란치스코] 3월 기도 지향

3월: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들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도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바이 공동체>: 한마음 걷기



3월 8일 (토) 7:30 am

<아부다비 공동체>: 공동체 야외 바비큐 식사 나눔



3월 8일 (토) 6:00 pm



갈릴래아 이즈르엘 평야에는 밥그릇을 얹어 놓은 듯 인상적인 ‘타보르 산’이 있다. 주위가 다 보여서 ‘다볼산’이라 할 만큼 전망이 좋다. 해발 588미터에 달하는 타보르 산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공존하는 곳이다. 구약 시대에는 드보라가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꺾었고(판관 4-5장),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다.

사실 신약은,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오르셨는지 밝히지 않는다. 그저 ‘높은 산’이라고만 기록했을 뿐이다(마태 17,1 마르 9,2). 그러나 서기 4세기에 헬레나가 성전을 봉헌하고 7세기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한 성당이 지어진 것으로 보아, 그전부터 타보르라는 전승이 있었던 모양이다.

반면, 헤르몬 산을 지목하는 의견도 있다. 변모 바로 전에 예수님이 카이사리아 필리피에 계셨기 때문이다(마태 16,13-20). 카이사리아 필리피는 현재 골란 고원의 북서쪽 지방으로서, 헤르몬 산과 무척 가깝다. 그러나 타보르와 헤르몬 가운데 어디가 더 정확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듯 하다. 게다가 두 산 모두 주님의 위업을 드러내는 봉우리로서, 시편 89,13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권위가 타보르와 헤르몬을 통해 나타난다고 찬양한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어 신성하신 당신의 참모습을 드러내심은, 주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전조가 된다(2베드 1,16-18 참조). 곧, 하늘 나라의 권능이 주님 변모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타보르 산 정상의 ‘변모 성전’

주님의 변모는 또한 탈출기를 재현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시나이 산에 머무셨을 때 구름이 엿새 동안 그곳을 덮은 것처럼(탈출 24,16), 엿새 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 위를 덮었다(마르 9,7). 하느님이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탈출 24,16), 예수님의 변모 때도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마르 9,7).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처럼(탈출 34,30),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나고 제자들은 겁에 질렸다(마르 9,3,6). 게다가 높은 산은 시나이 산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모세와 엘리야도 시나이(호렙) 산에 올랐었다.

특히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서의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구원까지 한 라인을 이어간다. 그리고 모세의 등장은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킬 모세 같은 예언자’(신명 18,15)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뜻하며(사도 3,28), 엘리야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리라’라는 말(3,23)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과 수난 전에 당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까닭은 아마 제자들을 위한 배려였을 것이다. 수난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곧 약한 인간에게 미리 보여주신 하나의 끈 같은 사건이었다. 이 경이로운 모습에 압도된 베드로는 엉겁결에 초막을 짓고 싶다고 고백하는데, 그런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 압도를 넘어 신성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다. 이는 한낱 인간이 완전하신 하느님을 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하느님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고, 사실 그 기억 때문에 평생 동안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 아마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변모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다. 비록 십자가형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으나(루카 22,54-62), 그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계기는 예수님 신성에 대한 확신 덕분이었을 것이다.



2025년 '희망'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 아멘.

교황 프란치스코를 위한 기도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희는 당신의 종 프란치스코를
자애로이 돌보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는 예수회원으로, 사제로, 대주교로, 추기경으로,
그리고 교황으로서 당신을 섬겨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아드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포함하여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 연민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새로운 병마와 맞서 싸우는 이때,
그를 돌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고통을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바칩니다.

아멘.

- 제임스 마틴 SJ 신부 -



선 · 생 · 님 · 공 · 금 · 해 · 요 ·



<8> '감사합니다' 와 '찬미합니다'

“선생님, 독서 말씀 끝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응답하고 복음 말씀 끝에는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응답하나요? 똑같이 하면 안 되나요?” 전례부 학생이 제게 묻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다르게 하는지 예전에 저도 참 궁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미사로 들어가는 말씀 전례 부분 중 ‘독서·화답송·복음 환호송·복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씀 전례의 중심은 하느님 말씀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응답하는 예절로, 말씀이 백성에게 선포되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예식의 한 부분입니다. 독서자의 입을 통해 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지금 직접 나에게 해주시는 시간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는 평일엔 한 번, 주일과 대축일에는 두 번 봉독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의 풍성함을 나누는 시간으로, 전례 시기와 축일 등 해당 시기와 조화를 이루며, 그 시기의 특징과 익혀야 할 내용을 반영하는 말씀으로 구성됩니다.

제1독서는 신약의 일을 보여준, 그날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구약성경에서 선택합니다.

제2독서는 복음 말씀 생활화와 관련된 사도들의 서간(편지글)을 선택합니다.

화답송은 성경 말씀을 듣고 외치는 응답의 노래이며 독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약성경의 ‘시편’에서 인용합니다.

복음 환호송(알렐루야)은, 매 주일은 작은 부활 축제로서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와 기쁨의 날이기에, 우리는 알렐루야(주님을 찬양하라)를 외치는 것입니다. 또 잠시 후 선포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복음(기쁜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을 받아들여 깊이 새겨 둘 준비를 하게 합니다.

복음서는 3년을 주기로 가해는 마태오 복음서, 나해는 마르코 복음서, 다해는 루카 복음서가 선택됩니다. 요한 복

음서는 매년 전례 시기에 맞춰 선택합니다.

독서를 봉독할 때 “○○○의 말씀입니다”라고 밝히는 이유는 저자, 또는 성경 이름을 통해 하느님의 신비가 어떻게 이해되고 체험되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독서자가 독서를 마치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신자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응답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지혜를 비취주셨음에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사제가 복음 선포 끝 부분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 찬미로 응답하는 것으로,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말씀 전례의 최고 절정입니다. 사제가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면, 신자들은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응답하면서 ‘이마, 입술, 가슴’에 작은 십자 성호를 긋습니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복음을 머리로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여 말씀을 전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말씀이며, 그리스도 자신의 상징으로 보기에 부제와 사제만 선포합니다. 신자는 복음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일어서서 복음을 듣습니다.



가톨릭 평화 신문, <박오란 교리 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 편집



누가 길을 아는가?

글: 공지영 마리아(작가)

디즈니의 영화 <이집트 왕자 2>(Joseph King of Dreams)에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압니다>(You know better than I)라는 요셉의 노래가 나온다. 처음, 이 노래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요즘도 가끔 힘들 때 이 노래를 듣는다. 그리고 아직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내 안에 있는 교만들 때문일 것이다.

이 노래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 간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부른 노래이며,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부른 노래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중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처형 되었으나 복직된 이는 요셉을 잊었다. 아마도 푸르른 청춘이었을 요셉은 이제 자신의 젊은 시절은 물론 평생을 지하 감옥에서 썩어 갈 신세가 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이제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생각했으리라. 어쩌다 자신이 이리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로서는 알 수가 없었으리라. 지하 감옥, 잊혀짐 그리고 홀로 죽어감.... 그때 이 노래가 나온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가장 확실한 길을 선택했다고 믿었는데 그 길이 날 여기 데려다 놓았어요."

나더러 번역하라면 아마도 "네가 생각한 대로 산 결과가 딱 이 꼴이야!" 이랬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를 더 아프게 했던 구절들이 흘러나온다. "나는 저항했죠. 이것이 시험이라면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진실이 확인해졌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아는 게, 이걸 헤쳐 나가는 길이겠지요.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왜냐고 묻는 그 마음ைய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니까요."

한때 이 세상과 내 인생에 대해 '왜죠? 왜죠?' 하고 물었던 때가 생각났다. 대체 '왜 나입니까?' 하고도 물었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게 이러시는 건가요?' 하고 물었던 것도 기억났다. 밤마다 아이들을 재워놓고, 소주병과 잔을 두 개 가져다 하나는 십자가 아래 놓고 하나는 내가 마시며 -두 잔 다 내가 마셨다- 원망과 주정을 하던 때도 있었다. (이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아직도 권한다. 괜히 친구 괴롭히지 말고, 집에서 검약하게 이런 방법을 쓰라고.) 그때 가장 많이 물었던 단어가 '왜?'였던 것 같다.

오래도록 "당신이 어떻게 내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고 외쳤는데, 하도 오래 외치다 보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주정이 "당신이 어떻게 내게... 뭐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하고 바뀌는 날이 있었다. 기적 같은 변화였다. 팽팽하던 분노와 긴장이 일순간에 풀어져 내렸고 옅은 해방감 같은 것이 찾아왔다. 그리고 깨달음들이 왔다. '날이 왜 이렇게 추워?'라든가 '웬 비가 이리 많이 내려?'라든가,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거야?'라든가 하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알게 된 것이다. 가끔 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면 나는 농담처럼 묻곤 했다. "네가 몸소 날씨 플랜을 하늘에 제출하고 왔어?"

나는 아직도 기도한다. "요래 요래 해 주시고요, 조래 조래 마시고요, 재는 좀 혼내주시고요. 재에게는 돈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이런 기도가 전혀 잘못된 아니겠지만, 그 후에 덧붙이는 것을 잊곤 한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가장 중요한 말이다.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떠 있었는데 나는 그게 하늘인 줄 알았어요." 노래의 2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여전히 그것이 내 이야기인가 싶다. 그래서 다시 기도한다. "하느님 뜻대로 하시고 제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은총을 주십시오. 어느 게 더 좋은지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니."



사.진.목.상.



사진, 글 by 박노해 가스파르 시인

칼데라의 아침

브로모 화산이 하얀 입김을 날리며 깨어나는 아침.
태초의 시간인 듯 또 하루의 삶이 주어지면
탱거르인들은 산정에 올라 아침 기도를 바친다.
자신들이 맨손으로 일거온 계단밭과 마을에 새겨진
삶의 터 무늬를 자부심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성실한 노동과 우애의 역사를 들려준다.
인생의 좋고 나쁜 일들은 시간의 강물로 사라지지만
내 삶의 터 무늬와 내 안에 새겨진 내면의 느낌은
신생(新生)의 아침처럼 언제나 새로운 경이로 빛나리라고.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 김보연 안젤라 (055. 360. 0733) (054. 396. 1010)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SGE 두바이삼성학원 강남 삼성학원 두바이 분원 1. 아부다비/두바이 국제학교 2. 현지 대학 입학 대행 서비스 3. 특례 입시 전문 4. 성인반 영어 프로그램 정미숙 라파엘라 (+971) 50 461 3991 /  : 두바이삼성학원
---	---	---